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여성들의 수유양상 기초조사*
- 수유관련 지식 수준 및 모유수유율 -

김기남¹ · 현태선 · 강남미¹⁾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건국대학교 간호학과¹⁾

A Survey on the Feeding Practices of Women for the Development of
a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
- Breastfeeding Knowledge and Breastfeeding Rates -

Ki-Nam Kim,¹ Taisun Hyun, Nam-Mi Kang¹⁾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Department of Nursing,¹⁾ Konkuk University, Cheongju, Korea

ABSTRACT

A surve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breastfeeding knowledge, breastfeeding rates and related factors among women in Seoul and the Chungbuk area, in order to obtain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on breastfeeding. Subjects included 671 lactating mothers who visited public health or pediatric centers, between December, 1999 and February, 2000 and were interviewed using a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breastfeeding knowledge, most of the subjects (93.4%) knew correctly that 'breastfeeding is better for a baby's emotional development than formula feeding,' whereas only half of the subjects (51.7%) answered correctly the question on whether 'formula is more nutritious than breastmilk.' The breastfeeding rates were about 57%, 40%, 33% and 12%, respectively for baby's aged 1, 3, 6, and 12 months.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breastfeeding rate rapidly decreased with the baby's age. Lower breastfeeding rates were associated with high educational level (college graduate and above), high income, mothers' employment, no experience of attending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s, and no planning on breastfeeding prior to pregnancy.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knowledge and breastfeeding practice; the higher the knowledge score, the higher the breastfeeding rate. In conclusion, an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offered for each low breastfeeding rate group, in order to promote breastfeeding.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7(3) : 345~353, 2002)

KEY WORDS : breastfeeding · breastfeeding knowledge · breastfeeding rate

서 론

모유는 아기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

해택일 : 2002년 5월 21일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 HC-11-09)에 의하여 수행된 과제의 일부입니다.

¹Corresponding author: Ki-Nam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aesin-dong, Heungduk-ku, Cheongju, Chungbuk 361-763, Korea

Tel: (043) 261-2742, 2745, Fax: (043) 267-2742

E-mail: songhak@trut.chungbuk.ac.kr

유하고 있어서 아기에게 가장 적합한 영양공급원이며, 모유에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성분도 함유되어 인공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질적으로 우수하다. 또한 모유수유는 모자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주어 아기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산모에게는 산욕기 우울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산모의 자궁수축을 돕고, 유방암 발생도 낮추어 준다고 알려져 있다(Worthington-Roberts & William 1989).

우리 나라의 여성들은 모유영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모유수유의 실천율이 상당히 낮고 인공유수유를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움직임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				Total	
Family	Resident area	Seoul 223 (33.2)	Cheongju 327 (49.3)	Chungju 126 (17.5)		665	
	Family type	Nuclear family 555 (82.7)	Extended family 116 (17.3)			671	
	Number of children	One 337 (50.2)	Two 270 (41.4)	Three 51 (7.6)	Four 5 (0.7)	671	
	Income (10,000 won)	≤ 100 104 (15.5)	100 - 200 92 (13.7)	≥ 200 423 (63.0)	52 (7.7)	671	
Mother	Age (years)	≤ 25 years 67 (10.0)	26 - 30 years 192 (28.6)	≥ 31 years 362 (53.9)	50 (7.5)	671	
	Education	≤ Middle school graduate 22 (3.3)	High school graduate 404 (60.2)	≥ College graduate 245 (36.5)		671	
	Employment status	Not employed 509 (76.5)	Employed 156 (23.5)			665	
	Occupation	Professional 67 (42.9)	Manufactural 15 (3.2)	Clerical 36 (23.1)	Other 9 (5.7)	Sales 39 (25.6)	156
Father	Age (years)	≤ 25 years 12 (1.8)	26 - 30 years 298 (44.5)	≥ 31 years 212 (31.7)	147 (22.0)	669	
	Education	≤ Middle school graduate 13 (2.0)	High school graduate 281 (42.6)	≥ College graduate 365 (55.4)		659	
	Occupation	Professional 171 (26.0)	Manufactural 15 (2.3)	Clerical 298 (45.3)	Other 50 (7.6)	Sales 124 (18.8)	658
	Gender	Boy 367 (54.9)	Girl 302 (45.1)			669	
Baby	Age (months)	≤ 6 months 205 (30.7)	7 - 12 months 208 (31.2)	13 - 18 months 130 (19.5)	124 (18.6)	670	
	Delivery place	General hospital 197 (29.5)	Maternity clinic 10 (1.5)	Private hospital 456 (68.3)	5 (0.7)	668	
	Delivery type	Vaginal delivery 380 (56.8)	Caesarian operation 289 (43.2)			669	

임이 일고 있기는 하나 국내 모유수유율은 1960년대에 95%로부터 1970년대에는 46~69%, 1980년대에는 36~50%, 1990년대에는 24~35% 정도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Park & Kwon 1991; Lee 1992; Park & Hwang 1994). 포항시 주민들의 모유수유 실태에서도 1개월까지 모유를 먹인 비율은 21.8%이었고, 그 후 3개월까지 모유를 먹인 사람의 비율은 15.7%에 불과하였다(포항시 남구 보건소 1999). 최근 '98 국민·영양조사에서도 생후 1년까지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가 15.4%이었으며, 모유만을 수유한 기간은 평균 4.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1999).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1979년과 1989년 2차에 걸쳐 국민건강사업의 일환으로 'Healthy people 2000'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전국민이 모유수유를 하도록 강력하게 방향제시를 한 바 있고, 민간인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계몽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모유수유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1970년대에 20%에 불과하던 모유수유 비

율이 1995년에는 60%대로 상승하였다. WHO와 UNICEF에서도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모유수유 캠페인을 해오고 있으며, 모유를 먹이는 기간에 있어서도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만을 먹이도록 하고, 그 후에는 모유와 이유식을 함께 먹이되 모유 먹이는 기간을 12개월까지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Kyenkye-Isabirye M 1992). 이러한 단체에서는 '모유의 우수성과 가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아울러 보건요원들이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율 면에서 현재와 같이 높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Poverty 1991).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몇몇 연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임산부들이 분유에 대하여는 선전을 통하여 많이 듣게 되지만 모유에 대하여는 배울 기회가 없어서,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따라서 모유수유를 하려는 동기 및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Jung & Lee 1983; Kim 1990; Jo 1992). 한편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 수준 또는 인지도가 높을수록 모

Table 2. Mothers' knowledges of Breastfeeding

		N (%)		
Topic	Question	Correct answer	Incorrect answer	Don't know
Ingredient of breastmilk	Breastmilk is easier to digest than formula	551 (82.1)	49 (7.3)	71 (10.6)
	Formula is more nutritious than breastmilk	347 (51.7)	186 (27.7)	138 (20.6)
	Alcohol is present in breastmilk after mother drinks	514 (76.6)	62 (9.2)	95 (14.2)
Benefits for baby	Breastfeeding reduces the incidence of allergenic diseases	456 (68.0)	68 (10.1)	147 (21.9)
	Breastfeeding increases the risk of diarrhea and constipation	480 (71.5)	103 (15.4)	88 (13.1)
	Breastfeeding reduces the risk of tooth decay	487 (72.6)	44 (6.6)	140 (20.9)
	Breastfeeding is better for babies' emotional development	627 (93.4)	10 (1.5)	88 (13.1)
Benefits for mother	Breastfeeding has the effect of child spacing	457 (68.1)	89 (13.3)	125 (18.6)
	Breastfeeding delays postpartum recovery	470 (70.0)	93 (13.9)	108 (16.1)
	Breastfeeding increases the risk of ovarian and breast cancer	511 (76.2)	40 (6.0)	120 (17.9)
Amount of breastmilk	Worries reduces the production of breastmilk	442 (65.9)	66 (9.8)	163 (24.3)
	Small breasts produce insufficient amount of milk	467 (69.6)	44 (14.0)	110 (16.4)
		Total N = 671		

유수유 실천도가 높다는 보고도 있다(Ahn 등 1995; Jeon & Hong 1996; Choi 2000). 따라서 감소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유수유를 활성화시키려면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유부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수준 또는 모유수유 실천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모유수유 실태에 관한 조사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Jung & Lee 1983; Kim 등 1985; Lee & Kim 1991; Song 1991; Jeon & Hong 1996; Nam 1997; Wang & Kim 1999),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별 결과가 가끔 보고되어 있을 뿐, 충북지역에 관한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또한 서울의 경우에도 특정지역의 일부 자료(Kwon 등 1985; Song 1989; Son 등 1992; Lee & Hwang 1992)들이 보고되어 있을 뿐, 서울 전지역을 비교적 골고루 표집한 경우는 드물었으며, 특히 도시 규모에 따라 비교한 논문은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대도시)과 충북지역의 청주(중도시) 및 충주(소도시)에 거주하는 수유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유관련 지식 수준과 모유수유율을 조사·비교하였다. 또한 그 동안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조사대상을 포집할 때, 보건소나 병원 이용자 중 한쪽만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와 소아과 양측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표집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차후 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충북지역 거주자로서, 아기 어머니 약 700명이었고, 이들에게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3개월간이었다.

2. 연구 방법

1) 설문지 개발

설문지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유관련 지식, 모유수유율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적 특성에는 가족의 거주지, 가족형태, 자녀수, 월수입과 아기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에 관한 내용과 영유아의 성별, 월령, 분만장소, 분만 방식 등이 포함되었다. 수유지식에 관한 내용은 선행연구들(Gulick 1983; Mctiernan & Thomas 1986; Yoo 등 1992; Beaudry 등 1995)을 참고로 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는데, 젖 성분 관련 3개 문항, 아기에게 좋은 점 4개 문항, 모세에게 좋은 점 3개 문항, 젖 분비량 관련 내용 2개 문항 등 총 12개 문항이었다. 모유수유율 조사 내용에서는 모유수유 여부 및 모유 수유기간 등을 포함시켰다.

2) 보건소 및 병원 섭외

설문조사에 협조해 준 보건소는 서울지역 4개 보건소(은평구, 노원구, 관악구, 강동구)와 충북지역 3개 보건소(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보건소 및 충주시 보건소)로서 총 7개소였다. 설문조사에 협조해 준 병원은 서울지역 종합병원 2개소(영동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건국대 부속병원 소

아과)와 개인병원 3개소였고, 충북지역은 종합병원 1개소 (충북대 부속 병원 소아과)와 청주시와 충주시 소재 개인 병원 2개소였다.

3) 수유부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에 대한 훈련을 받은 조사원들이 해당 보건소와 병원을 방문하여, 보건소 또는 병원을 방문한 약 700명의 아기 어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개인별로 면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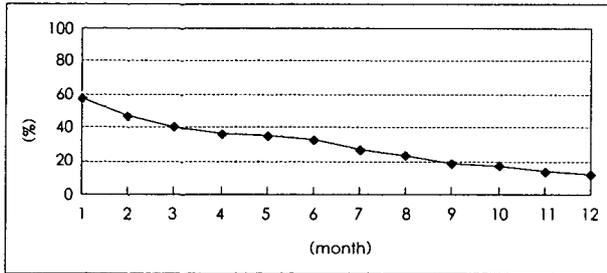


Fig. 1. Breastfeeding rate by postpartum month.

Table 3. Feeding method by breastfeeding knowledge score N (%)

Knowledge score ¹⁾	Breastfeeding > 6 ²⁾	Formula	Total	χ^2 -test
0-3	13 (38.2)	21 (61.8)	34 (8.1)	
4-6	71 (47.0)	80 (53.0)	151 (36.0)	0.029*
7-9	135 (57.6)	99 (42.3)	234 (55.8)	
Total	219 (52.3)	200 (47.7)	419 (100.0)	

1) Knowledge on superiority of breastmilk. The maximum score is 9, 2) Breastfeeding over 6 months, *: p < 0.05

3. 자료처리 방법

1) 빈도 및 백분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유지식 문항별 정답자 비율 및 영유아 월령별 모유수유율 등은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2) 통계적 유의성 검증

수유관련 지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9개 문항 각각에 대하여, 정답을 맞춘 경우 1점씩을 부과한 후, 개인별 합계를 내었다(9점 만점). 이 점수에 의하여 상, 중, 하 세 그룹으로 분류한 후, 그룹별 수유방법의 차이(Table 3), 일반적 특성 및 수유관련 사항과 모유 먹인 기간과의 관련성(Fig. 2, 3)은 χ^2 -test에 의하여, 또한 수유방식 그룹간 수유관련 지식의 정확도 및 인지도의 차이(Table 4)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사후검증은 Tukey test를 사용함)을 하였다.

이때 정확도는 총 질문 문항 중에서 정답을 맞춘 개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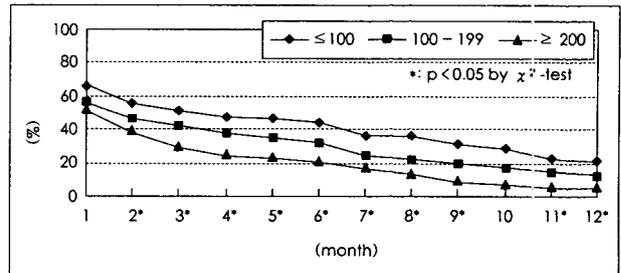


Fig. 2C. Breastfeeding rate by postpartum month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Family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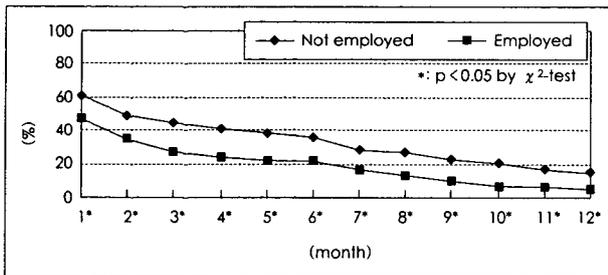


Fig. 2A. Breastfeeding rate by postpartum month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Mothers' employment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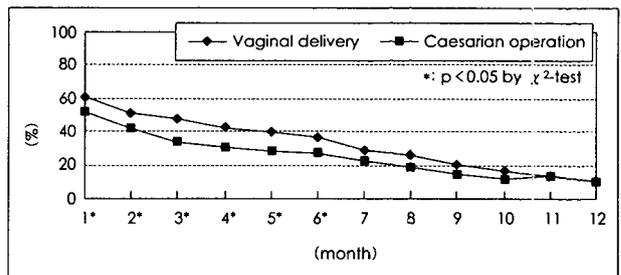


Fig. 2D. Breastfeeding rate by postpartum month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Delivery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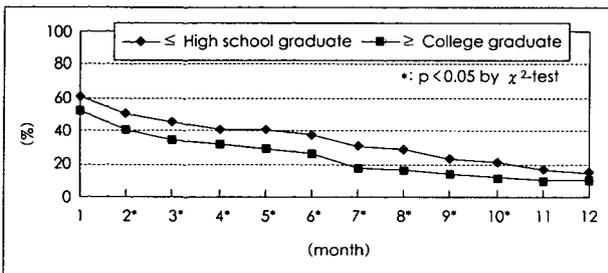


Fig. 2B. Breastfeeding rate by postpartum month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Mothers'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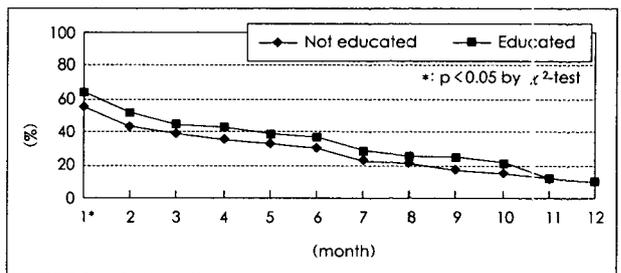


Fig. 2E. Breastfeeding rate by postpartum month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Breastfeeding education).

비율을 산출하였고, 인지도는 모른다고 대답한 것을 제외하고, 정답이든 오답이든 간에 답을 한 경우에 그 개수를 비율로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약 700명 중 671명의 자료가 분석 가능하였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거주지역은 서울시가 33.2%(223명)였고, 청주시 49.3%(327명), 충주시가 17.5%(126명)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2.7%이었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은 17.3%였다. 시니수에 있어서는 1명이 50.2%(337명)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자녀 2명인 가정이 41.4%(270명)였다. 가정의 월수입은 100~199만원이 63.0%(423명)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만원 이하가 15.5%(104명)이었다.

월수입 200~299만원인 가정은 92명으로서 13.7%였고, 300만원 이상인 가정은 52명으로서 7.7%였다.

아기 어머니의 연령은 26~30세가 53.9%(362명)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1~35세가 28.6%(192명)였고, 25세 이하가 10.0%(67명)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출신이 60.2%(404명)로서 가장 많았고, 취업율 하고 있는 수유부는 156명(23.5%)이었으며, 취업자의 직업은 전문직 종사자가 67명으로서 42.9%를 차지하였고, 사무직 36명(23.1%), 판매직이 39명(25.6%) 순이었다.

아기 아버지의 경우 연령 분포는 31~35세가 가장 많아서 44.5%(298명)였으며, 그 다음이 26~30세로서 31.7%(212명)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55.4%(365명)로서 가장 많았으며, 직업 종류는 사무직이 298명(45.3%)으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직으로서 171명(26.0%)이었다.

다음에는 영유아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영유아들 중 남아는 367명(54.9%)이었고, 여아는 30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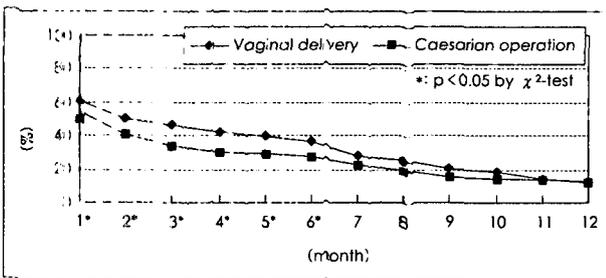


Fig. 3A. Breastfeeding rate by postpartum month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Delivery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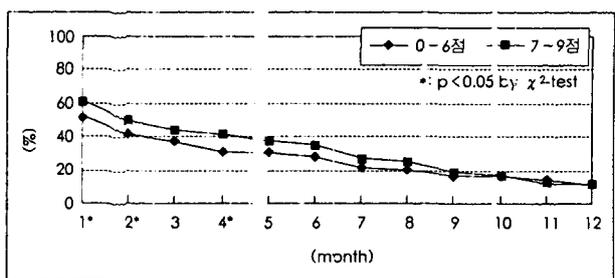


Fig. 3C. Breastfeeding rate by postpartum month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Breastfeeding knowledge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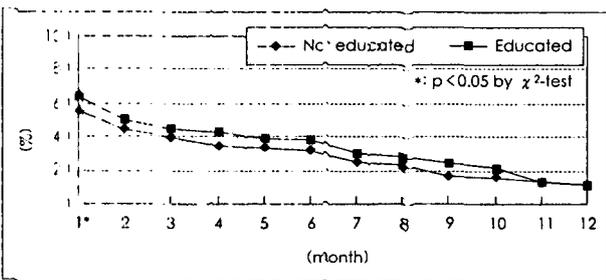


Fig. 3B. Breastfeeding rate by postpartum month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Breastfeeding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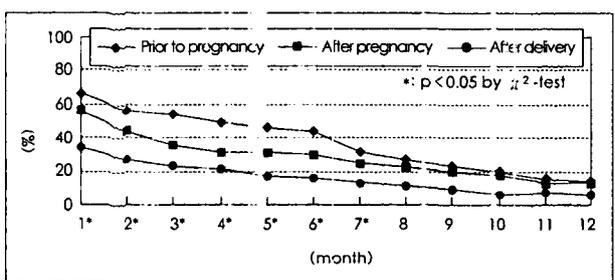


Fig. 3D. Breastfeeding rate by postpartum month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Time to plan feeding method).

Table 4. Accuracy and perceivness on breastfeeding knowledge by feeding method

Feeding type	N	Accuracy ¹⁾		Perceivness ²⁾	
		Mean ± SD	p	Mean ± SD	p
Breastfeeding only	138	73.2 ± 20.2 ^{ab†}		89.2 ± 9.5	
Formula feeding only	200	68.1 ± 21.1 ^c	***	88.1 ± 10.6	
Mixed feeding	78	72.6 ± 23.9 ^b		89.4 ± 11.2	NS
Breastfeeding → formula feeding ³⁾	255	74.5 ± 19.2 ^a		88.7 ± 10.3	

1) Percentage of the numbers of correct answers, 2) Percentage of the numbers of answers saying "right" or "wrong" (except "don't know"), 3) Breastfeeding over 6 months followed by formula feeding. †: value with different letter is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at p < 0.05 by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 p < 0.001, NS: not significant

(45.1%)였다. 영유아의 연령 분포에 있어서는 12개월 이하가 335명(2~3개월 48명, 4~6개월 157명, 7~12개월 130명)으로서 50.2%를 차지하였고, 13개월 이상부터 24개월까지가 332명(13~18개월 208명, 19~24개월 124명)으로서 49.8%이었다. 아이가 분만된 장소로는 개인병원이 가장 많아서 68.3%(456명)이었고, 종합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197명(29.5%)이었다. 분만 방식으로는 자연분만이 380명(56.8%)이었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289명(43.2%)이었다.

2. 수유관련 지식

조사 대상자 671명을 대상으로, 수유관련 지식의 문항별 정답자 비율을 알아보았다. 질문 내용으로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젖 성분 관련 3개 문항, 모유수유로 인하여 아기에게 좋은 점 4개 문항, 모체에 좋은 점 3개 문항, 젖 분비량에 관한 2개 문항, 총 12개 문항이었다. 이 중에서 정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모유를 먹이면 아기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하다'로 '예'라고 답한 비율이 93.4%였고, 가장 낮은 문항은 '영아를 위해 분유의 영양가가 모유보다 더 우수하다'로 '아니오'라고 대답한 비율이 51.7%밖에 되지 않았다. 오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분유의 영양가가 모유보다 더 우수하다'로 '예'라고 답한 비율이 27.7%나 되었다. 질문 문항 중 답을 모른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근심 걱정이 많으면 모유 분비량이 감소된다'로서 모른다는 비율이 24.3%였다. 한편 수유관련 지식을 조사한 타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연구자마다 질문내용이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가 곤란하였으나, 같은 질문인 '모유를 먹이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는 질문에 대하여, 포천지역 수유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Choi (2000)의 연구결과에서 '아니오'라고 정답을 맞춘 비율이 82.3%로서 비교적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율이 76.2%로 나타나 모유수유가 모체의 유방암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에 대하여는 수유부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수유관련 지식 수준을 요약해보면, 정답자 비율의 분포면에서 볼 때, 50%대로 나온 것이 1개 문항, 60%대가 4개, 70%대가 5개 문항이었고, 80%대와 90%대인 문항이 각각 1개였다. 이것으로 보아 12개 문항 중 9개 문항의 정답율이 60~70%대에 있으므로, 수유지식이 매우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정답자 비율이 가장 낮은 '분유의 영양가'와 '젖 분비량'에 관한 내용 및 모유수유로 인한 '아기측과 모체측의 잇점'에 관한 계몽이 교육을 통하여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모

유의 영양가가 분유보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1.7% 뿐이라는 사실은 분유회사의 지나친 상업성 광고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조제분유의 광고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규약으로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Hyun 등 2001), 모유의 우수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모유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모유수유율

1) 영유아 월령별 모유수유율

영유아의 월령에 따른 모유수유율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1개월에서의 모유수유율은 약 57%였으나 월령이 증가하면서 비율이 점점 낮아져서 3개월에는 약 40%에 이르렀고, 6개월에 약 33%, 12개월에 약 12%로 낮아졌다. 이와 같이 유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모유수유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타 지역의 조사결과와 비슷하였다. 즉 인천지역의 경우(Jeon & Hong 1995) 1개월에 약 39%, 3개월에는 약간 낮아진 38% 정도였다가 6개월에는 더욱 낮아진 25%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포항의 경우 1개월까지 21.8%, 3개월까지 15.7%를 나타내었다(포항시 남구 보건소 1999). 포천지역의 연구결과(Choi 2000)에서도 1개월에 42.2%, 3개월에 31.4% 6개월에 22.5%, 12개월에는 11.5%를 나타내었다. WHO와 UNICEF에서는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만을 먹고, 그 후에는 모유와 이유식을 함께 먹이되 모유 먹이는 기간을 12개월까지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Kyenkye-Isabirye M 1992).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낮을 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지속기간도 매우 짧음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출산 직후의 모유수유율과 모유수유 지속기간을 함께 높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됨으로써 우리 나라 수유부들도 WHO와 UNICEF에서 권장하는 최소한 6개월 동안만이라도 모유만을 먹이는 비율이 하루빨리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및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2) 모유 먹인 기간에 영향 미친 요인들

수유부들이 모유를 먹이는 기간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들의 월령별로 모유를 먹이고 안 먹이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수유부의

직업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Fig. 2A), 그밖에 학력(Fig. 2B), 월수입(Fig. 2C), 분만 방식(Fig. 3A), 수유관련 교육여부(Fig. 3B), 수유지식 점수(Fig. 3C), 수유 계획 세운 시기(Fig. 3D)가 월령별 모유수유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수유부가 직업을 가진 경우, 생후 1개월부터 12개월 내내 모유수유율이 낮았으며($p < 0.05$), 학력의 경우에는 생후 1개월에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생후 2개월부터 10개월에 이르기까지 학력이 높은 수유부들의 모유수유율이 낮게 나타났다($p < 0.05$). 경제수준에 있어서도 생후 2개월부터 9개월까지 내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모유수유율이 낮았다($p < 0.05$). 그런데 이와 같이 학력, 직업 유무, 경제수준 세 요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인 수유부들의 직업면에서, 학력이 높은 전문직 직종이 약 43%나 될 만큼 높다보니, 자연히 이들의 경제수준도 높게 되어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은 수유부들의 모유수유율이 이와 같이 낮은 현상은 타 연구자의 결과(Oh 등 1994; Ahn 등 1995; Jeon & Hong 1996; Choi 2000)와도 일치하는 현상이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라 생각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반면에 미국, 영국,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오히려 모유를 먹이는 비율이 높은 점을 생각할 때(Grossman 등 1990; Giugliani 등 1992), 우리 나라도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선진국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한편 분만방식에 따라서는 생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자연분만 그룹에 비하여 제왕절개 그룹의 모유수유율이 낮았고, 그후에는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모유만을 전적으로 먹여야 하는 생후 6개월까지 제왕절개로 인하여 모유를 먹이지 못한다면 이것은 모유수유율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모유수유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모들이 그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채로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Kim 등 1985). 현실적으로 볼 때로 우리 나라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후 신생아를 신생아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므로 산모는 아기와 접촉할 기회가 적어지고 따라서 모유수유를 시도할 기회도 적어지거나 놓치게 되기 쉽고, 제왕절개시의 약물투여 또한 모유수유를 꺼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제왕절개 비율은 약 36.1%나 될 만큼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대단히 높아서(Park 2000) 앞으로 이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불가피하여 제왕절개를 한 산모라 할지라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환자교육 및 모자동실과 같은 제도

상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 다음 '모유수유 교육 여부'는 1개월 때에는 교육받은 그룹의 모유수유율이 교육받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높았으나 2개월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수준에서는, 지식 수준이 높은 그룹의 모유수유율이 적어도 4개월까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앞에서 모유수유 교육 여부가 별로 모유수유 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에 비하여, 수유계획을 세운 시기는 모유수유 지속기간에 비교적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Fig. 3D). 즉 분만 후에 수유계획을 세운 그룹은 모유수유율이 가장 낮았으나, 임신 기간에 특히 임신 전에 수유계획을 세운 그룹은 모유수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들에게 임신 전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수유관련 지식 수준의 향상은 물론 수유계획을 미리부터 세우도록 한다면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도시규모에 따른 거주지역, 형제 서열, 분만 장소는 모유수유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모유수유율이 낮은 집단의 특성을 요약해 본다면, 교육수준이 대졸이상,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월수입이 200만원 이상), 분만방식이 제왕절개인 집단, 수유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수유지식이 낮은 집단, 수유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고 분만에 임박하여 세운 집단 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당 집단에 대한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교육 및 홍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4. 수유관련 지식 정도와 모유수유 실천과의 관련

Table 2의 수유관련 지식 12개 문항 중에는 모유의 우수성에 관한 내용이 9개 포함되어 있는데, 모유관련 지식의 정도가 수유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식 점수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0~3점, 4~6점, 7~9점), 세 점수 집단에서 각각 모유를 먹이는 사람과 분유를 먹이는 사람의 비율을 알아보았다(Table 3). 이것은 모유의 우수성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유 먹이는 비율이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지식점수가 낮은 집단(0~3점)에서는 모유를 먹이는 비율이 38.2%인 반면에, 분유를 먹이는 비율은 61.8%로서 분유를 더 많이 먹였으며, 지식점수가 높은 집단(7~9점)의 경우에는 분유 먹이는 비율(42.3%)보다 모유를 먹이는 비율(57.6%)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은 그룹에서 모유영양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은 인천지역(Jeon & Hong 1996)과 포천지역(Choi 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다. Song 등(1993)의 연구에서도 영유아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실천율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에는 수유방식별로 수유지식의 정확도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분유만 먹인 그룹의 수유지식 정확도가 가장 낮았고, 모유를 먹인 사람들의 정확도는 어느 경우이건 세 그룹 모두, 분유만 먹은 경우보다는 모두 높았다. 한편 수유방식에 따라 인지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수유관련 지식수준과 모유수유 실천과는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이 임신 전부터 실시된다면, 이미 국내외적으로 사전교육의 효과가 검증된 바와 같이(Kaplowitz & Olson 1983; Kistin 등 1990; Freed 1993; Nam 1997), 미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차후에 모유수유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결혼 적령기에 있거나 그 이전 단계인 중, 고, 대학생 시절부터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하여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유수유의 실태를 파악한 기초조사로, 서울과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671명의 수유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유관련 지식 수준, 모유수유 여부 및 수유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차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도움이 될 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모유 먹인 기간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찾아보았고, 아울러 수유관련 지식과 모유수유 실천도와의 관계성도 알아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유관련 지식 12개 문항 중 정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모유를 먹이면 아기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하다' (93.4%)였고, 정답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문항은 '분유의 영양가가 모유보다 더 우수하다' (51.7%)였다. 정답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근심 걱정이 많으면 모유 분비량이 감소된다' (24.3%)였다. 오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분유의 영양가가 모유보다 더 우수하다' (27.7%)였다.

2) 월령별 모유수유율은 1개월에 약 57%, 3개월에 약 40%, 6개월에 약 33%, 12개월에 약 12%를 나타내어, 월

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유수유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유수유 여부 및 수유기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직업 유무, 학력, 경제수준, 분만 방식, 수유관련 교육 여부, 수유지식 수준, 수유계획을 세운 시기 등으로서, 모유수유율이 낮은 집단의 특성은 직업을 가진 사람,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 분만방식이 제왕절개인 집단, 수유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수유지식이 낮은 집단, 수유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은 집단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도시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3) 수유관련 지식 수준과 모유수유 실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모유수유 실천율도 높게 나타났다. 즉 수유관련 지식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모유 먹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고, 지식 점수가 낮은 집단은 분유 먹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수유관련 지식의 정확도에 있어서도 분유집단이 가장 낮았고, 모유를 먹이는 사람들은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모유수유율이 낮은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을 통하여 모유의 우수성 및 장점이 널리 홍보되어 수유관련 지식이 향상되고, 수유계획을 임신 전부터 미리미리 세우도록 한다면, 또한 제왕절개 방식을 남용하지 않도록 계몽한다면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이 현재보다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보다 적절한 프로그램이 계층별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승조(1990) : 모유수유의 장애요인 및 대책, 모유권장 대책토론회. 소비자 문제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박문일(2000) : '제왕절개' 줄여야, 조선일보 2000년 5월 8일자 컬럼
- 박인화·황나미(1995) : 모유수유 실태 분석과 지원정책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1999) : '98 국민건강·영양조사
- 송규희(1989) : 서울시내 일부 병원 내원한 임신부들의 모유수유에 관한 태도 및 지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혜(1992) : 국내모유수유의 실태. *생활간호* 12 : 114-116
- 정귀영·이근(1983) : 모유 실패의 원인. *소아과* 26 : 527-533
- 조미영(1992) :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학회지* 31(1) : 28-34
- 포항시 남구 보건소(1999) : 모유수유에 대한 포항시 주민의 인식도 조사 및 모유수유 권장사업, 모자보건거점 보건사업연구보고서

Ahn HS, Bai HS Bai, Kim SY (1995): Research on Biological and

- Sociobehavioral Factors affecting Determinants of Breast Feeding Duration. *Korean J Nutrition* 28(4): 331-344
- Beaudry M, Dufour R, Marcoux S (1995): Relation between infant feeding and infection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life. *J Pediatr* 126: 191-197
- Choi KS (2000): A Study on Feeding Practices and Growth status of Infants and the Correlation of Mothers' Perceptions of Breast Feeding with Infant Feeding Methods in the Pocheon Area.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5(4): 569-577
- Freed CL (1993): Breast-feeding: time to teach what we preach. *JAMA* 269: 243-245
- Giugliani ERJ, Issler RMS, Justo EB, Seffrin CF, Hartman RM, Carvalho NM (1992): Risk factors for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in Brazil. *Acta Paediatrica*, 81: 484-487
- Grossman LK, Harten C, Sachs L, Kay A (1990): The effect of postpartum lactation counseling on the duration of breast-feeding in low-income women. *Am J Dis Child* 144: 471-474
- Gulick BE (1983): Infant health and breast-feeding. *Pediatric Nursing* 9: 359-362
- Hyun JS, Lim EY, Kang NMg, Kim KN (2001): Prenatal Breastfeeding Education and Infant Feeding Practices in Public Health Centers and Baby-Friendly Hospital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6(4): 678-685
- Jeon HS, Hong SY (199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tatus and Method of Infant Feeding in Incheon.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 433-440
- Kaplowitz DD, Olson CM (1983): The effect of an education program on the decision to breastfeed. *J Nutr Edu* 15: 61-65
- Kim YH, Lee K, Kim CH, Lee KS, Shin SM, Han DG, Moon SJ (1985): The Present Status of Infants Feeding in Korea. *J of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28(10): 8-13
- Kistin N, Benton D, Rao S, Sullivan M (1999): Breast-feeding rates among black urban low-income women: effect of prenatal education. *Pediatrics* 86: 741-746
- Kwon BK, Tchui BS, Han JH (1985): A Study on Breast Feeding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a part of Seoul and Rural Areas. *J Korean Public Health* 11: 17-27
- Kyenya-Isabirye M (1992): UNICEF launches the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MCN Am J Matern Child Nurs* 17(4): 177-179
- Lee JS, Kim ES (1991): A Longitudinal Study on Human Milk Volume and Lactational Pattern. *Korean J Nutrition* 24(1): 48-57
- Lee YS, Hwang GS (1992): A Survey on the Infant Feeding in Seoul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7: 97-103
- Mctiernan A, Thomas DB (1986): Evidence for a Protective Effect of Lactation on Risk of Breast Cancer in Young Woman. *Am J Epidemiol* 124(3): 353-858
- Nam ES (1997): The Effect of a Breastfeeding Educational Program on Feeding Behavior. *J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3(2): 241-252
- Oh HE, Park NJ, Im ES (1994): An Analytic Study Measuring Factors interrupting in Breast Feeding. *The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4(1): 68-79
- Park OH, Kwon IS (1991): The Present Status of Breast Feeding Practice according to the Postpartum Period. *The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1(1): 45-57
- Poverty KM (1991): WIC and promotion of breast-feeding. *Pediatrics* 87: 399-400
- Sohn KH, Yoon S, Lee YM, Min SH, Jeon JH (1992): The Study of Infant Feeding in Weaning Period - Focused on Seoul and Kyunggido Area -. *Korean J Dietary Culture* 7(4): 309-321
- Song JH, Kim SA, Moon YS, Park YJ, Paik SN, Pyun SJ, Lee NH, Cho KJ, Cho HS, Choi MH, Choi YJ (1993): Study on Recognition and Practice of Breastfeeding of Mothers of under Toddler. *The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3(2): 153-165
- Song YS (1991): The Present Status of Infant Feeding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Korean J of Nutrition* 27(3): 272-280
- Wang SG, Kim JH (1999): A Study on Infant Feeding and Weaning Practice in Taejon. *Korean J of Community Nutrition* 4(4): 489-495
- Worthington-Roberts BS, William SR (1989): Nutrition in Pregnancy and Lactation, Mosby, St. louis
- Yoo KY, Tajima K, Kuroishi T, Hirose K, Yoshida M, Miura S, Murai H (1992): Independent Protective Effect of Lactation against Breast Cancer: A Case Control Study in Japan. *Am J Epidemiol* 135(7): 726-733